



누구보다 바쁘지만 일과 수행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성북경찰서 불자회 김두식(사진 오른쪽)·권원하 형사.

2월 21일 새벽 6시. 강력범죄수사팀 반장 김두식 형사는 서울 길음동 자택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를 전, 침도법을 잡고 나서 취조하고 조서를 꾸미는 밤을 꼬박 새워 몸이 불편하다. 그래도 김 형사는 10분 동안 명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아만 하루 일과가 차분하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지능범죄수사팀 권원하 형사도 몸을 일으킨다. 권 형사는 아침에 늘 피로함을 느낀다. 전날은 특히 힘들었다. 오후에는 전남 목포에서, 새벽에는 전북 무안과 광주에서 범인을 쫓았다. 그렇지만 자리에 누운 채로 약 5분간 '관세음 보살' 정근을 하다 보면 이내 잠도 깨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난다. 권 형사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루도 경찰로, 가장으로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발원이 가득하다.

명상·관음정근으로 하루 시작

이들은 7시 20분이면 성북경찰서에 도착해 '오랫차차' 체력관리에 들어간다. 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범죄 현장.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단련된' 자신뿐이다. 이어지는 각 팀의 조회. 관내에서 일어난 범죄, 신고·접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팀원들과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후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는 오전 10시 경, 약 20분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두 형사는 이 '틈새 시간'을 놓치지 않고 명상을 찾는다. 요즘 김 형사는 명당을 찾는 횟수가 늘었다. 관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하나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다. 7개월 전 발생한 '명문대졸 여생 이모(31세) 피살 사건'의 증거가 잡히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했으면 해서 평소 주 2-3회 정도 명당을 찾았지만 요즘은 더 매달리고 있다. "피해자 가족, 특히 어머니가 통사정하며 전화를 할 땐 참 미안합니다. 범인을 잡아야 그 분들이 좀 편해지시죠." 법당에 가만히 앉아있던 김 형사의 머릿속에는 지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대부분의 사건이 우발적이라 '앗'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가끔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눈을 감지도 못한 채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김 형사는 살며시 다가와 눈을 감겨주고 '극락왕생'을 빈다. 처음에는 피해자인 눈에 밝혔는데 이제는 남겨진 가족들이 더

범인도 피해자도 부처님 대하듯

많은 직장불자들은 "일에만 쫓겨 산다"고 말한다. 불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과 믿음'은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생각을 바꾸면 직장생활도 흐트러짐 없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성북경찰서 불자회 회장 김두식(50·고덕) 형사와 現 회장 권원하(41·정도) 형사의 하루는 어떤지 따라가 봤다.

불자의 하루- 성북경찰서 불자회 김두식·권원하 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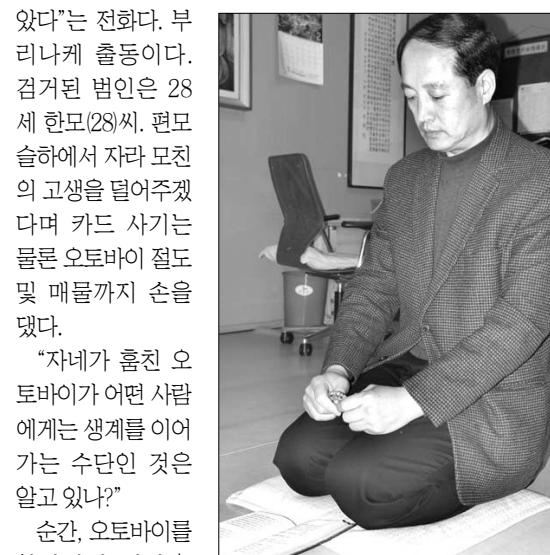


"곧 출동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있는 권원하 형사.

걱정이다. 그래서 김 형사는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에도 더 열심이다. 김 형사가 법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권 형사가 들어온다. 권 형사도 수사계에 있다 보니 별한 고민이 다르지 않다. 경찰관이 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늘 그를 달리게 만든다. 권 형사가 맡고 있는 카드 및 보험사가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 치속아도 세번 생각하고 행동

이렇게 법당에서 시작되는 하루, 두 형사의 업무태도가 달라진다. 부하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단번에 성낼 것은 세 번 생각해 보고, 범인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게 되는 것이다. 김 형사는 이날 성북구 사찰들도 둘러보기로 하고 모 사찰을 찾았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 했는가, 대웅전에서 10대 청소년 한 명이 불전환 무임승차도 표정미만 집어넣고 있다. 사찰 불전환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사찰 신도들의 귀띔이 있었지만 현행법이 눈앞에 있을 줄이야, 바로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김 형사는 '어린 도둑'의 어깨만 툭툭 친다. 초범인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표정을 보니 김 형사는 슬쩍 웃음이 나온다. 무조건 불탑아 구치소에 보내는 것 보다는 교화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윗층은 청소년까지 정미한 범죄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배움이 들어있는 곳이거든. 내가 꺼낸 그 돈을 넣은 사람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야." 그 시간, 경찰서 내에 있던 권 형사는 전화를 한 통 받는다. 이미 100여대 피해사례가 신고 된 "오토바이 사기꾼"을 잡



바쁜 업무 속에서 틈이 날때마다 명당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는 김두식 형사.

았다"는 전화다. 부러나케 출동이다. 검거된 범인은 28세 한모(28세). 편모 슬하에서 자라 모친의 고생을 털어주겠다며 카드 사기는 물론 오토바이 절도 및 매물까지 손을 댔다. "자네가 훔친 오토바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것은 알고 있나?" 순간, 오토바이를 잃어버려 배달을 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동네 중국집 주인의 얼굴이 떠올라 한치가 미워진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권 형사는 한치가 되려 딱하다.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훔친 물건을 팔아서는 살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 그것을 알기에 권 형사는 피해자도 범인도 모두 측은해지는 것이다.

일 잘하는 형사보다 불심깊은 사람되고자

검거하는 범인의 숫자가 늘어갈 수록 경력이 쌓여 승진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보람도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착잡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두 형사 모두 주변에서 공인된 '일 잘하는 형사', '부지런한 형사'지만 항상 스스로 '불자'로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고민하기 때문. 가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범인도 있지만 부처님 법 안에서 보면 언제나 '측은지심'의 대상이다. 도박을 끊지 못한 범죄를 일으킨 가장,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갈을 든 소년, 빚쟁이가 가족을 괴롭혀 찾기에 일을 저지른 청년 등 범인들도 저마다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김 형사와 권 형사. 다음 날, 다시 또 다른 범인을 잡아야 하고 미해결 사건과 씨름해야겠지만 발견음이 무겁지 않은 법당이다. 범인이든 피해자든 모두 부처님처럼 대하려는 불심이 있으니까. 글·사진=김경진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사람 위해 법이 있습니다”

이홍주 변호사

법조인 사무실이 빠르게 들어온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의례히 돈과 명예가 따라왔던 예전과 달리 이제 이곳은 치열한 삶의 경쟁터가 됐다. 변호사도 변신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에 '사람과 법'이라는 범상치 않은 간판. 2001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터줏대감'이 된 변호사 이홍주(41·사진)씨의 사무실이다. "개업할 때 생각했지요. 지금 법의 기본 취지가 많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원래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법'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법' 앞에 '사람' 있다는 '사람과 법'이다. 이제는 자신이 '진짜 불자'가 된 것은 서러운 일이 되어서라고 말한다.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소망했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 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어린 시절부터 절에는 다녔지만 '진정한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 앞에 서원합니다'라고 마음 깊은 곳부터 발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5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짬짬이 위빠사나, 참선 등의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렸다는 이씨.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변호사가 됐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심심찮게 성공적인 '소용로법'으로 소개되는 '사람과 법' 대표변호사지만 이씨에게도 스트레스는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아무 고민 없는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지 않지요. 수심이 가득한 누군가를 위해 법정에서 대신 싸워야 하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의 생활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람'이 '법'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신념이 흔들릴 때 생긴다. 개업 초기의 마음, 부처님 앞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렇다. 삶의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매진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씨의 마음 한 가운데는 '세간법과 부처님 법을 어떻게 조절해야 슬기로운가' 항상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가 직접 적어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갑 한 구석에 꽂아두고 힘들 때 마다 펼쳐본다. 또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님을 보는 것이 진자 여래를 보는 것이다(若見諸相非相 即見如来)'는 <금강경>사구계를 직접 써보기도 한다.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이씨의 다짐이다. 사무실에서의 수행은 매주 둘째주 일요일, 이씨가 찾는 서울 조계사에서도 이어진다. 불자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사법연수원생 불자모임 '다르마 법우회' 총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시원한 '경상도 사나이' 이씨는 탁월한 리더십과 '사람'을 늘 먼저 생각하는 불자로서의 자세 때문인지 어디서나 인기가. "불자"라는 생각을 늘 가슴 속에 지니고 살지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부처님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행도 본격적으로 해야겠지요." 글·사진=김경진 기자



Advertisement for 'Sungmoam'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It includes details about a health seminar on November 6th and 25th, and a list of symptoms treated by the product.

Advertisement for 'Sungmoam'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a Buddhist ceremony. It includes details about a ceremony on January 1st, a list of services offere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ungmoam center.

Advertisement for 'Sungmoam' (명당옥책방)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a book fair. It includes details about a book fair on January 1st, a list of books availab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ungmoam center.